광주 남구 '푸른길 브릿지' 개통… 지역 랜드마크 될까

광주지역 최초 '공중보행로' 조성 교통불편 해소·상권 활성화 일조 "백운광장 남구 발전 중심축으로" 시민 "지자체, 꾸준한 관심 당부"

"광주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를 개통합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푸른길 브릿지가 29일 오후 개통식을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광주지역 최초 공중보행로로 개통 전부 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이날 개통식 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푸른길 브릿지는 진월동과 남광주역 방향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연결하고 보행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공중보행로다.

푸른길 브릿지는 남구가 민선 7·8기에 추진하고 있는 뉴딜(도시재생)사업의 세 번째결과물로, 총사업비 107억9000만원 이 투입됐다.

남구는 2020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30여년만에 철거된 백운고가자리에 공중보행로인 푸른길 브릿지를 조성했다. 푸른길 브릿지는 본선 205m와 경사로 146m를 더해 총길이 351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스트리트 푸드존 등 백운광장 일대 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남구는 푸른길 브릿지 위에서 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이 29일 남구 백운광장 일원에서 푸른길 브릿지 개통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스킹과 아나바다 장터 등 각종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갤러리로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미디어월과 매주 토요일 스트리 트 푸드존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전환 하는 등 유동인구와 방문객 수 증가를 목 표로 다양한 행사가 추진 중이다.

김병내남구청장은 "백운광장 뉴딜사업 추진으로 바랬던 것은 관내 유일 상업지 역인 백운광장을 남구 발전의 새 중심축 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푸른길 브릿지 개통은 침체된 백운광장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로 나아가는 힘찬 날갯짓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푸른길 브릿지는 광주지역 최초 공중보 행로로 개통 전부터 주민들의 관심과 기 대를 받았다.

설 명절을 맞아 임시개통했던 지난 2월 6~13일 총 2만2000여명이 푸른길 브릿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식 개통을 하는 이날에는 비가 내리 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 의 발길이 이어졌다.

식전 행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에 이어 개통 선포를 알리는 컷팅식으로 개통식이 마무리되자 주민들은 일제히 개방된 푸른길 브릿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 푸른길 브릿지에 오르는 주민들은 주위를 둘러보기 바빴다.

주민 최주연(32)씨는 "그동안 도시철 도 2호선 공사로 도로가 복잡해지면서 횡 단보도를 2~3번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 었는데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다"며 "저녁에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60대 김모씨는 "지나가다 봤을 때는 좁아 보였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넓고 잘 조성된 것 같다"며 "다만 남구청까지 연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은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쉽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운광장 일대 상인 이병조씨는 "스트리트 푸드존이 생기고 나서 관광객이 2배가량 늘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먼지나 소음 문제가 발생해 다시 원점으로돌아갔다"며 "푸른길 브릿지로 백운동과주월동 주민들이 쉽게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도 서둘러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밝혔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제2의 중흥기를 위해 뉴딜사업 막바지 사업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경제 분야 거점으로 차량 158대를 수용하는 대형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며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푸른길 브릿지에서 종합청사 2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동선 확보를 위해 청사 내 입주한 기관·기업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

정상아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전남 흐리고 비 예보

30일 광주와 전남은 내리던 비가 점차 그치겠고 전남동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 녁사이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제주도 남 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 5mm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30 일 아침최저기온은 12~15도, 낮최고기온 은 17~25도가 되겠다. 5월1일 아침최저 기온은 10~13도, 낮최고기온은 17~21도 로 예측됐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서부동쪽먼바 다는바람이 30~60km/h(9~16 m/s)로 매 우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 지역과 시간, 예상 강수량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아기자

완도해경, 화물선·LNG선 충돌사고 송치

지난 2월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 졸음운 항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선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 해양경찰은 화객선 선장 A (60)씨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 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17일 완도군 여서 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 (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 돌사고 당시 졸음운항, 승선 신고보다 많 은 인원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화객선 선장 A 씨는 자동조타 중 졸음 운항으로 인해 입항 대기를 위해 표류 중 인 LNG 운반선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 다.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90여회,

3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미신고 과 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 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